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제5차 여성가족분과 회의록(5월)

일 시	2019. 5. 27.(월) 14:00 ~ 18:00	기록	임복희	확인	신필교, 조여옥	
장 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참석자	총 19명중 13명 참석 (참여율 68.4% - 관 0/3, 민 13/16)					
	신필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장	×	박재규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센터장	○
	조여옥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	오정하	수원시가족여성회관 팀장	×
	김미옥	수원시여성의심터 원장	○	윤경숙	여성친화팀 주무관	×
	김정숙	고운뜰 원장	○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김민주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	김소현	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 주무관	×
	전영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조경희	가톨릭여성의집 시설장	○
	박성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최옥순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대표	○	마소현	수원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곽금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장	○	서주애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
김경이	수원YWCA 책임간사	○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배석	○	
회의주제 및 안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3강 페미니즘 대중화와 대중문화 속 페미니즘 (강사 : 김미선)					
회의결과	3강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대중문화 속 페미니즘 <강사 : 김미선> 2019.5.27.(월) 1. 왜 ‘페미니즘 리부트’ 인가? - 젊은 2-30대 여성들의 삶과 남성의 삶을 이해한다는 뜻, 한국사회를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이슈임 2. 페미니즘 리부트란 무엇인가? ○ 2015년 이후 촉발된 젊은 여성대중 붐기를 정치적으로 의미 부여한 것으로, 페미니즘이 리부트되었다 - 과거 페미니즘 운동사를 계승하면서도 - 대중문화를 통해 부상한 페미니즘의 열기와 소비 상품적인 성격을 내포 ○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페미니즘의 등장 -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조직하는 방식,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다룰수 있는 2-30대의 도구의 변화로 인터넷 여성중심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 페미니즘 이슈가 가장 빠르게 유통되는 공간 -트위터(트페미) - 페미니즘 제4물결 ○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 -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가 되는 ‘영영페미니스트’ 등장 - ‘#나는페미니스트다’ 시대로, 페미니즘 뉴웨이브 - 2015년의 키워드 : 헬조선과 페미니즘					

<p>* 사회를 보는 남, 녀의 인식차이 존재. 젠더갈등</p> <p>○ 2015년에 페미니즘 리부트가 된 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요” (IS 김군)- 사회적 존재감이 없던 페미니즘이 네이버검색 1위로 등극 - 김태훈,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 두 사건을 계기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잇따름. 이로 촉발된 여성 대중의 광범위한 봉기가 페미니즘리부트와 페미니즘 대중화로 이어짐 <p>* 10-20대 젊은 남성들과 소통의 지점 찾기 필요</p> <p>○ 2015년 ‘메갈리아’ 현상 : 여성혐오를 미러링하는 ‘메갈리아’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6월 ‘메르스 갤러리’ +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제목 조합 -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여성 혐오의 역사를 비판 - 여성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의 주어를 남성으로 바꿔서 되돌려주는 미러링전략을 통해 현실 문제 폭로 <p>3. 페미니즘 리부트, 그리고 그 이후 페미니즘의 대중화</p> <p>1) 지금은, 페미니즘의 대중화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을 접하는 방식의 다양화 - SNS 등 온라인중심의 페미니즘 확산은 10-20대 평범한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게됨 - 페미니즘은 젊은 여성들 대다수에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됨 <p>○ 페미니즘의 대중화 현상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 나는 페미니스트, 메갈리아현상 - 2016년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p>○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청년여성들의 페미니스트로 정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10번출구 포스트잇 애도의 -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상황의 취약성, 혐오와 성적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타자로서의 위치성을 자각 <p>○ 2018년 미투운동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미국에서 시작, 전세계로 확대 -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고발. 스쿨미투 <p>* 일반여성, 서지현검사처럼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도 성폭력피해자 충격</p> <p>○ 문화예술계이 미투운동 : 고발되는 성폭력가해자 남성문화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정치계 등 <p>○ 남성중심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청년여성들이 거리로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여성 해화역 시위. 홍대 몰카사건, 디지털 성폭력 - 2018년 탈코르셋 운동-노 다이어트, 커트머리, 노 꾸밈노동 - 2019년 버닝썬계이트 규탄대회- 클럽, 약물, 남성연예인

<p>* 남성, 사회에 대한 불신이 청년여성들이 더 큼</p> <p>*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진 판사의 재판판결의 편파성 문제 의식</p> <p>2)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중문화 속 페미니즘은 어떤 모습인가?</p> <p>○ 남성(가장)은 위로하고 여성은 혐오하는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이후 위기의 남성가정 남성성 위로, 여성 비난 : 명품백, 꽃뱀, 김치녀 - 아재예능: 아는 형님, 중년남성 <p>○ 한국 예능의 중심이 ‘한남’ 엔터테인먼트와 남성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도전, 1박2일. 남성 위주의 예능 중심. 여성의 대상화 - 썰전, 알쏭잡, 김어준 팟캐스트, 남성네트워크, 남성연대 - 남 녀 이중잣대 <p>○ 여성이 출연할 수 있는 예능이 사라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이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하고 지켜야할 여자로 대상화 함 - 이성애, 결혼 계약 중심의 핵가족만이 상상 가능한 형태 <p>* 남성중심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여성소비자들의 비판이 제기</p> <p>○ 여성이 직접 만드는 대안적인 여성예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p>○ 여성들이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 여성예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숙현상 : 가모장 (가부장제 남성을 미러링) <p>○ 대중문화 속 페미니즘의 뚜렷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스트가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페미니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소설> - 출판시장 : 쏟아지는 페미니즘 서적들 : 페미니즘 이론서에서 페미니즘 대중서로 출판시장이 변화 - 페미니즘 리부트가 페미니즘 서적 시장 역시 리부트 시킨 것 - 영화시장, 여주인공 영화 밀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아가씨, 비밀은 없다 : 2017년 여성감독 영화 4편 개봉 : 2018년 소공녀, 리틀포레스트, 허스토리, 미쓰백, 걸캅스 - 여성이 사라진 스크린에 남성들만 캐스팅해서 남성들의 세계를 그리는데 집중하는 소위 ‘알탕’ 느와르와 사극 영화들 <p>* 여성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층이 있기에 여주인공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음</p> <p>* 걸캅스 : 영혼보내기</p> <p>○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문화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두잉책방 : 다양한 색깔의 페미니즘 책방 오픈 - 페미니즘 팟캐스트 제작, 다양한 페미니즘 모임,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청년여성들
--

	<p>○ 공적으로 말해지지 않았던 청년 여성의 경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의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경 : 다큐 피의연대기, 책 생리공감 - 낙태 및 낙태죄, 탈 코르셋 운동을 책과 영화로 제작 <p>○ 지금 한국사회는, 페미니즘을 주목한 젊은 여성들은 수동적인 대중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인 소비자로, 대중문화의 안팎을 넘나들며 페미니즘 목소리를 내고 있음</p> <p>4. 2015년 ‘페미니즘리부트’ 이전의 한국 사회는 어떠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이래 여성운동, 여성학, 여성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확산되어 옴 - 1990-2000년대 중반까지 학내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0-30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영페미니스트 등장 <p>○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이후, 페미니즘의 본격적인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여성운동 여성의전화, 또하나의문화 - 여성학 : 학제 내 지식으로 등장, 이후 제도화 -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등장 (2001년 여성부 설립) <p>○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빠르게 전개된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중반이후 영페미니스트의 등장 - 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 돌입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과 백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저조, 정치적 올바름, 가치 → 개인, 자기개발, 경제적 안정 * IMF 경제적인 환경이 사회 영향 : 페미니즘에 대한 피로감(페미니즘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 - 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돌입 이후 포스트페미니즘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 세대의 등장 : 여성의 자기개발서 폭발 -여성도 능력과 노력만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섹스앤더시티) - 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 돌입 이후 ‘페미니즘 백러시’와 ‘여성혐오의 시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들 역시 페미니즘 반발 - 빠순이 → 된장녀 → 김치녀 → 맘충 <p>○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전의 한국사회는 어떠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먹고사니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소멸, 취업학교가 되어버린 대학... <p>○ ‘일베’를 중심으로 10-20대 청년남성의 디지털 마초문화가 오프라인으로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커뮤니티의 남성화 <p>○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청년여성의 대거 등장, 촛불시위와 촛불소녀</p> <p>○ 거리로 나와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포스트페미니즘 세대의 페미니즘과 조우, 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수혜 속 성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은 삶의 조건이자 기반, 교육과 소비의 혜택에 남성과 거의 동등한 기회를 가진 젊은 여성들은 불용납. 날카롭게 읽고 비판 - 비록 청년 여성과 단절되어온 페미니즘이지만, 계속해서 뿌리내린 페미니즘 : 2005년을 기점으로 10년간 페미니즘이 대중운동으로서 여성들에게 말걸기에 실패한 측면이 있음 <p>5. 그럼 왜 (다시) 페미니즘인가?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은 청년 여성의 페미니즘적 문제제기에 대해서 알고있는가?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년여성의 미투운동이 여성일반, 엄마세대에게 미친 커다란 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운동을 계기로 여성 세대간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대의 형성 - 십대여성의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엄마들의 등장 ○ 청년 여성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우리 여성 모두의 이슈이기도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대상의 각종 성범죄와 성산업의 법적, 제도적 해결이 이뤄져야 함 <p>: 여성대상의 성폭력, 성범죄 등 남성중심적인 법적 장치로 미해결,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남성 가해자들. 십대여성을 향하는 성산업</p> ○ 젠더 갈등 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인 젠더인식을 가진 남성의 의식을 어떻게 개선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 노동시장의 각종 성차별 문제 해결, 여성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 성희롱, 여성의 저임금화 지정규직화,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 여성 경찰의 능력에 대한 논란... 여성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경, 여군, 여성소방관 ○ 여성의 몸과 건강, 여성에게 결정에게 결정 권한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담론, 여성에게 책임과 문제를 돌리는 정부 ○ 성 평등한 한국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소감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화는 상대적인 개념. 예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대에서 작년 미투운동, 페미니즘이 재부상되었지만 상대적인 대중화. - 여성들을 대상으로한 폭력사건, 범죄 등 가짜뉴스를 보고 모방에 대한 두려움 - 남성과 여성의 평등. 친밀한 관계속의 남성이장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온 청년의 남성 역할모델이 없는 현실의 어려움 - 페미니즘의 대중화. 어렸을때부터 여성운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봐왔지만, 성장후에는 재미없어했던 딸. 10-20대가 생각하는 것과 40-50대가 공부하는 강좌 내용의 차이가 있었음. 그러나 가깝게 페미니즘을 접하고 있음. 누구를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가꾸는 것, 온라인상의 많은 활동을 통해 접하고 있다 대중화되었다는 생각이 듦 - 발랄하고 재미난 방식의 이야기로 페미니즘을 풀어내는 대중문화,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	---

	<p>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대중문화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성평등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클것임. 요즘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이미지의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가 남성의 발자국소리만 듣고도 놀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 워마드의 성체훼손 사건- 남성에 의한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으나, 다시 뉴스화되지 않음 - 정확한 수치를 통해 현 사회의 모습을 알려줘야 함. 고위직 숫자... - 불편함을 강력하게 발언하는 남성들, 이전부터 불편함을 얘기해왔던 여성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환 - 남-녀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 심화될까 우려, 남성들이 이전의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와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결. 남성들이 자기 것(권력)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문제 - 페미니즘을 공부하다보면 적대감과 분노감이 들기도 함. 10-30대 여성들의 분노의 감정들이 이해되나 그동안 선배 여성들의 여성운동 역사와 공유, 소통이 필요함을 느낌. - 다른 페미니즘 인문학 모임에서 남성들이 참여하여 같이 논의하고 실제 자신의 가부장성을 되돌아보는데,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우리나라 굴곡의 역사 속에서 치유의 돌봄이 없었음 (한국전쟁 이후 치유를 정책적으로 다룬적이 없음). 아직까지도 대결중심적 사회구조, 치유적 접근이 필요함 <p>이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립이 아니라 치유의 장이 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함.</p>
--	--